



NC 마무리 투수 이용찬이 6월19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KBO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9회 말에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FA 미아’ 5명 어디로 칼바람 속 풍운아 신세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어느덧 마무리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2024시즌이 끝난 뒤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총 20명이었다. 이 가운데 A등급으로 분류된 선수는 3명, B등급 9명이고 C등급은 8명이었다.

20명 가운데 15명이 원소속 구단과 재계약했거나 새로운 동지를 찾아 떠났고 이제 시장에는 5명만 남았다.

A등급 3명 중에서는 투수 최원태만 유일하게 LG 트윈스에서 삼성 라이온즈로 옮겼고, 롯데 자이언츠에서 FA 자격을 얻었던 김원중과 구승민은 모두 잔류를 택했다.

최원태는 계약금 24억 원, 4년 연봉 합계 34억 원, 인센티브 12억 원 등 최대 70억 원에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B등급 중에서도 투수 엄상백이 kt wiz에서 한화 이글스로 이적하며 계약금 34억 원, 4년 연봉 합계 32억 5000만 원, 인센티브 11억 5000만 원 등 최대 78억 원 ‘대박’을 터뜨렸다.

SSG 랜더스의 ‘간판’ 최정민은 등급은 C

자유계약 20명 중 15명은 새 동지 B등급 이용찬·하주석 계약 못해 C등급 서건창·김성욱 등도 표류 시즌 끝나도 계약 가능성은 있어

등급이었지만 4년간 계약금 30억 원, 연봉 80억 원 등 110억 원을 받아 ‘원클럽맨’ 대우를 제대로 받았다.

반면 아직 계약을 맺지 못한 선수들 가운데 B등급은 내야수 하주석과 투수 이용찬 2명이다. 남은 세 명은 C등급인 내야수 서건창, 외야수 김성욱, 투수 문성현이다.

지난 시즌까지 한화 이글스에서 뛰 하주석은 한화가 FA 내야수 심우준을 영입하며 팀 내 입지가 좁아졌다.

2022시즌까지 100안타 이상을 5년 달성했고, 두 자릿수 홈런도 세 시즌을 기록한 하주석은 올해는 부상으로 일찍 시즌을 마감했다.

NC 다이노스에서 마무리를 맡았던 이용찬은 2022년에는 22세이브에 평균 자책점 2.08로 잘 던졌으나 올해는 16세이브에 평균 자책점 6.13으로 흔들렸다.

NC에서 계약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용찬이 잔류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팀 조건을 더 받아볼 것인지가 변수다.

2012년 신인상, 2014년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MVP) 등 화려한 이력의 서건창은 올해 KIA 타이거즈에서 규정 타석에는 모자라지만 타율 0.310을 치며 다소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하주석과 이용찬 등 B등급 선수를 데려가는 구단은 원소속 팀에 해당 선수 연봉 100%와 보호 선수 25명 외 1명을 보상 선수로 줘야 한다.

C등급은 보상 선수 없이 연봉 150%를 주면 된다. FA 계약에 정해진 마감 시한은 없지만 구단들은 대개 스프링캠프 시작 전에는 선수단 구성을 마치고 마련이다.

다만 이용찬의 경우 2020시즌이 끝난 뒤 두산 베어스에서 FA 자격을 얻었고, 2021년 5월이 돼서야 NC와 계약한 바 있다.

2023시즌이 끝난 뒤에도 LG 트윈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합류주와 FA 재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1월에는 KIA가 김선빈과 재계약하는 등 해를 넘긴 FA 계약 사례가 적지 않았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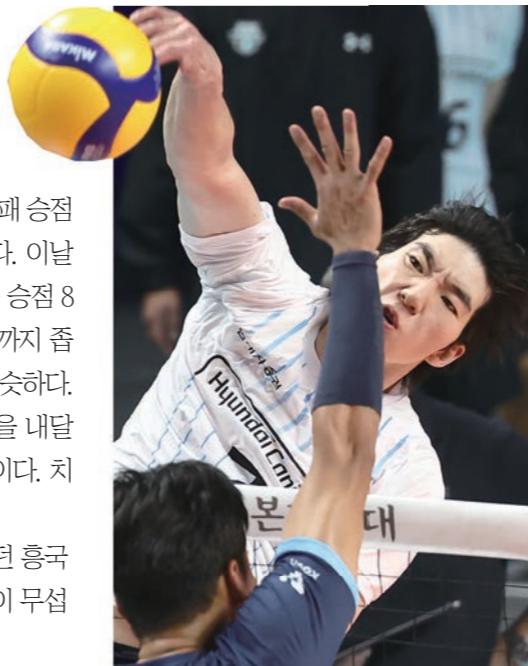
반환점 V리그... 내일 크리스마스 맞대결 ‘짜릿’

남자부 1위 현대캐피탈 vs 2위 대한항공 25일 격돌
女 1위 흥국생명 뒤쫓는 현대건설·정관장도 쏠쏠

프로배구 2024-2025 V리그가 반환점을 돈다. 각 구단은 오늘부터 31일까지 각각 두 경기씩을 치른 뒤 내년 1월1일부터 6일까지 울스타 브레이크에 들어간다. 각 팀은 일정에 따라 약 열흘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후반기 일정을 준비한다. 선수들은 휴식기 때 충분히 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남은 경기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남자부 전반기 잔여 경기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경기는 크리스마스인 내일 펼쳐진다. 1위 현대캐피탈과 2위 대한항공이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전반기 마지막 맞대결을 펼친다. 허수봉, 레오나르도 레이바 마르티네스(등록명 레오) 쌍포를 앞세운 현대캐피탈은 올 시즌 14승 2패 승점 40의 성적으로 1위를 질주하고 있다. 디펜딩 챔피언 대한

항공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11승 5패 승점 35로 현대캐피탈을 맹추격 중이다.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 두 팀의 격차는 승점 8 차이까지 벌어지거나 승점 2 차이까지 좁혀질 수 있다. 양 팀의 분위기는 비슷하다. 현대캐피탈은 파죽지세로 7연승을 내달리고 있고, 대한항공도 2연승 중이다.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여자부에선 ‘절대 1강’으로 꼽히던 흥국생명이 주축한 사이 2위 현대건설이 무섭게 추격했다. 흥국생명은 개막 후 14연승을 달리고 3위 정관장, 2위 현대건설에 연거푸 패하면서 고구라졌다.



현대캐피탈 허수봉이 10월20일 서울 잠충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프로배구 V리그 우리카드와 현대캐피탈의 경기에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즈父子 PNC 챔피언십 준우승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아들 찰리와 출전한 ‘가족 이벤트 대회’ PNC 챔피언십(총 상금 108만5000달러) 우승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즈 부자(父子)는 23일(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리츠 칼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PNC 챔피언십 최종 2라운드에서 홀인원 하나와 버디 13개를 쓸어 담으며 15언더파 57타를 합작했다. 최종 합계 28언더파 116타로 베른하르트 랑거(독일)-제이슨 부자와 동타를 이룬 우즈 팀은 1차 연장전에서 이글을 잡아낸 랑거 팀에 우승을 내줬다. PNC

챔피언십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챔피언스의 이벤트 대회로, 프로 선수와 가족이 2인 1조를 이뤄 36홀 스크램블 방식(한팀의 두 명이 각자 티샷한 뒤 그중 하나를 골라 그 자리에서 두 명 모두 다음 샷을 하는 방식)으로 경기한다. 2009년부터 대회에 찰리와 출전한 우즈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준우승을 기록했다. 이들은 아직 우승한 적이 없다. 2009년 2월생으로 곧 16세가 되는 찰리는 이날 4번 홀(파 3·176야드)에서 첫 홀인원을 작성해 분위기를 달궜다. 4번 홀 홀인원에 기여하는 타이거 우즈(왼쪽)와 아들 찰리. AFP·연합뉴스



RomaRo
GRAND QUALITY

Confidence in the Short game.

Alcobaça
ASA WEDGE LADY

www.romarogolf.co.kr